정청래·김민석 또 호남행…차기 당권주자 민심 선점 경쟁

방문 일주일도 안돼 나란히 광주·전남 일정 소화
전당대회 당심 다지기…계파간 주도권 경쟁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달아 광주·전남을 찾으면서 텃밭에서의 당권 레이스가 점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당내 본경선 때에 이어 결선 투표 직전 지역 방문 일정이 겹치면서 당권 경쟁과 함께 계파 대결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광주·전남을 찾아 산업과 의료, 민생 현장을 살피는 호남 일정에 나섰다. 휴일인 지난 5일 나란히 광주를 찾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호남행에 오른 것이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를 이끌고 1박 2일 간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 누빌 계획이다.

이날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한 정 대표는 여수 서시장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폈다. 프로야구 경기도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야구 관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군수로 있는 전남 담양군을 찾아 창평전통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호남행에 올랐다. 이날 전북 전주와 익산을 방문한 김 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둘러본다.

4선 의원으로 차기 당권·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호남행을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전남에서의 지지기반 다지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주와 전남의 권리당원은 32만여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25%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6·3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 총선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선거에서 당의 심장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방문 시점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내 본경선 마지막 날과 결선 투표 3일 남짓 남은 시기에 이뤄져 계파 간 정치역학 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6선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의 방문과도 맞물려 민주당 내 친명, 친청 진영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의 당심을 선점할 경우 조직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다 이는 전당대회, 총선,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친명과 친청 사이의 사활을 건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영록 "광주시민 삶 전면 재설계"

5대 민생 공약 제시…"일자리 10만개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광주 시민 삶 전반을 겨냥한 종합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9일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5대 정책'을 발표하고, "도시의 미래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일자리부터 복지까지 삶 전반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광주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산업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함께 대학·기업·지자체를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은 별도 조직으로 묶는다. '광주 청년재단'을 설립해 일자리, 주거, 창업, 교육, 문화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결혼·출산·정착까지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청년 삶 전반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접근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린이 종합병원' 설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아전문 진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대응 강화, 희귀질환 치료까지 포함한 호남권 소아의료 기반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광주형 건강타운'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 빛고을·효령 건강타운을 중심으로 건강·재활·돌봄 기능을 통합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스포츠 분야에서는 체류형 도시 전환을 제시했다. 프로야구장 확충과 파크골프장 조성, 무등산과 5·18 민주화운동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로 방문과 체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여수산단 살릴 해법 찾을 터"

침체 상황 점검…노동자들과 고용·산업 재편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침체한 여수산단의 위기를 진단하고, 산단 노동자들과 고용 및 산업 재편 방안을 모색했다.

민형배 후보는 최근 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를 찾아 "여수산단을 살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해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을 진단했다.

현장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이 생존을 건 전환의 기로에 놓인 만큼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일부 실적 개선 흐름에 대해서는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로 잠시 숨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동 상황의 여파로 다음달부터 고가 원료 투입이 본격화되면 수익성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 후보는 "지금 여수산단은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할 시점"이라며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 어렵고,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지원, 산업 전환에 맞춘 종합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후보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노조 측은 "민형배 후보를 특별시장으로 만들어야 여수산단이 살아날 수 있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고용·생활 안정과 산업전환 지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노조 측이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고용안정과 취업지원 제도 마련 △산업전환에 대응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노사정 협의를 통한 안전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정선 "전남 섬·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서부권 5대 교육비전' 발표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전남 서부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서부권 5대 교육비전'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목포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서부는 인재 육성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섬과 농산어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격차와 학생 수 감소 등 어려움이 크다"며 "40년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부권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큰 인물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5대 비전은 △제2진로진학거점센터 구축 △신안 도초고 성공모델 확산 △특화형 마이스터고 육성 △체험형 역사교육문화원 설립 △어르신 대상 '청춘학교' 운영 등이다.

제2진로진학거점센터는 원스톱 진학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섬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상담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초고 모델 확산은 소규모 학교의 성공 사례를 서부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모든 고등학교에 '365스터디룸'을 설치해 학습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화형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으로는 목포(스마트항만·물류), 영암(친환경·스마트 조선), 무안(항공정비·서비스)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와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한다.

또 서부권의 근현대사 유적과 해양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역사교육문화원을 설립해 교육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청춘학교'를 운영해 학력 인정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 건강·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30% 혁명 정치 구조 바꿀 것"

이정현, 통합특별시장 공천 신청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9일 공천 신청을 공식화하며 "30% 혁명으로 광주·전남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천 신청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도전은 단순한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95년 광주시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6선과 전남도지사를 거치는 등 30여년간 광주·전남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아홉 번의 도전은 단 한 번도 편한 길이 아니었고, 늘 경쟁자가 없는 환경 속에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정치에 가장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30% 혁명'을 제시했다. 그는 "30%는 독점을 견제하고 정치에 긴장과 경쟁을 만드는 최소 기준"이라며 "이 수준의 지지가 확보되면 공천과 정책, 예산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 당원은 약 7%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 시민은 언제든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의 쏠림 구조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닫힌 문을 계속 두드려 정치의 흐름을 바꾸고, 경쟁과 선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은미, 국힘 이정현 출마 규탄

"5·18 헌법 반영 발목 잡는 제2의 내란"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출마를 규탄했다.

강은미 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눈앞에 두고 온갖 시비로 방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직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다"고 밝혔다.

특히 "5·18 헌법 전문 수록 발목잡기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국민의힘과 이정현 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는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했던 인물로, '최근에는 12·3 내란을 내란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바꿔야 한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진짜 반란이다'며 불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앞장서 온 장본인이 통합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320만 시·도민의 역사와 자긍심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진 군민에 직접 선택 받겠다"

강진원, 민주당 경선 배제에 무소속 출마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강 예비후보는 9일 강진읍 5일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 동반자였던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 상징색이 아닌 연한 청록색 점퍼 차림으로 등장해 결별 의지를 드러냈다.

경선 배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경선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이라는 간접 방식이 아닌 군민이 직접 선택하는 선거로 평가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군민의 판단을 받기 위한 선택이고, 당선 이후에는 군민 뜻에 따라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반값 여행 정책, 농업인 공익수당 도입, 육아수당 확대 등을 주요 실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추진력을 내세웠다. 강 예비후보는 "군수 한 사람의 선택이 지역의 방향을 좌우한다"며 "오랜 기간 검증된 행정 경험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경륜·철학 갖춘 리더십 필요"

설정환 예비후보, 신수정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설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광주 북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가 9일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설 예비후보는 "2만 북구 행정은 그 무게만큼 도시재생, 복지, 생활인프라, 행정통합 대응 등 복합적인 현안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적임자가 신수정 후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구의원 3선, 광역의원 2선과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성과는 검증된 리더십의 결과"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추진력과 20년간 북구에서 쌓아온 신뢰는 지금 북구에 필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설 예비후보는 "도시재생과 생활인프라, 문화정책 등 북구의 주요 과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후보는 "북구는 지금 도시재생, 행정통합, 문화 및 복지 확충 등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과 문화정책, 당직과 국회 정책보좌 업무 등을 두루 경험한 도시정책전문가의 지지 표명은 후보의 정책 역량과 소통 리더십을 북구에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